

「정보통신서비스 정보보호지침」 시행

정보통신부는 해킹이나 컴퓨터바이러스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효과적인 사고대응을 위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정보시스템운영자, 이용자 등이 지켜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정보통신서비스 정보보호지침'을 제정, 9월1일부터 권고 시행한다.

지침 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침 제정 배경

최근 인터넷 쇼핑몰을 비롯한 각종 콘텐츠를 제공하는 인터넷사이트들과 구내정보 통신망(LAN)으로 종합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버아파트가 크게 늘면서 이 곳 정보시스템이 해킹·컴퓨터바이러스 등에 침해되거나 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유출시키는 경우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나 형법 등 관련 법률에는 정보시스템을 침해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은 마련돼 있으나, 침해사고 예방이나 효과적인 사고 대응을 위한 정보보호 관리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나 정보시스템 운영자가 지켜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장치도 미흡한 형편이다.

따라서 정통부는 사이버아파트 주민들이 정보통신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하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안전한 전자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정보시스템운영자, 이용자 등이 지켜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정보통신서비스 정보보호지침' 마련했다.

지침 주요내용

정보보호장비 설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침입차단시스템 등의 정보보호장비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정보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전산실에 있는 각종 장비의 도난, 파손, 변경, 불법적인 사용 등을 막기 위한 물리적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 주요 정보시스템들의 정보손상에 대비, 이중저장장치를 갖추도록 했다.

정보보호책임자 지정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정보보호관련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책임자'와 정보시스템 운용과 관리를 총괄하는 '시스템관리자'를 두고 이들을 중심으로 정보보호내부방침을 수립, 해킹이나 컴퓨터바이러스 유포 등의 침해사고를 체계적으로 막도록 했다. 다만, 규모가 적은 정보통신서비스제

공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형편에 따라 정보보호책임자와 시스템관리자를 1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보호책임자 책임한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정보보호책임자와 시스템관리자에 대한 책임한계를 명확히 한정, 이들이 맘대로 이용자정보 등을 유출하지 못하게 관리토록 했다. 다만, 이 지침은 법률이 아니므로 정보보호책임자나 시스템관리자 등이 이용자정보 등을 외부로 유출하였을 경우에 대한 처벌 문제는 다루지 않고 정보 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시 이를 반영할 방침이다.

부당이용자 서비스 제한

이용자가 해킹이나 컴퓨터바이러스를 유포하는 부당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다른 이용자들에게 불편, 불이익을 주는 부당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자 정보보호조치 사항

이용자들이 컴퓨터를 잘못 다루어 피해를 입지 않고 자신의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보호 조치사항도 권고했다. 예컨대 자신의 계정과 패스워드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발송자가 불명확한 전자우편이나 제공자가 불확실한 컴퓨터프로그램 등은 미리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여부를 점검토록 권고했다.

※ 문의 : 정보화기획실 정보보호기획과 최성준 사무관(전화 750-1264, 전자우편 sjchoi 77@mic.go.kr), 정보통신부(<http://www.mic.go.kr>)

회 · 원 · 사 · 소 · 식

코오롱정보통신-현대상사, B2B솔루션 합작사설립

코오롱정보통신(대표 유명렬)과 현대종합상사(대표 정재관), 대만의 KG백스트비전과 싱가포르의 ST 텔레미디어 등 4개사는 싱가포르의 B2B 전자상거래 솔루션 업체인 백스컴(대표 용분푸)과 합작법인 형태로 「백스컴 코리아」를 설립한다고 지난 8월 8일 밝혔다.

초기 자본금 500만달러(약 56억원) 규모로 설립되는 백스컴 코리아는 B2B 전자상거래 지원을 위한 지불, 인증, 보안, 물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 합작법인은 이미 설립된 백스컴 싱가포르, 백스컴 재팬, 백스컴 유럽, 백스컴 중국, 백스컴 미국 등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향후 한국에 대표적인 B2B 인프라 프로바이더로 성장해 나갈 계획이다.